

- 11월 1일(월) 단절의 계보전시 (10:00~18:00) - 금잔디 식당 앞
- 11월 2일(화) 단절의 계보전시 (10:00~17:00) - 금잔디 식당 앞
 <개막식>女氣발산 체육대회 (12:00~14:00) - 금잔디 광장
 <영화상영>바그다드 카페 (18:00~20:00) - 학생회관 4층 학생행사장
- 11월 3일(수) 성폭력 예방 캠페인 (14:00~16:00) - 금잔디 광장
 <영화상영>낮은 목소리 (18:00~20:00) - 퇴계인문관 31609 강의실
- 11월 4일(목) 여성학 연계전공 미리보기 (14:00~16:00) - 600주년 기념관 청단 강의실
 <폐막식>빨라이벤 파티 (18:00~) - 학생회관 4층 학생행사장





2004 WOM Festival

여기기로 날아오르다

여기기로 날아오르다 02

동페스티벌 프로그램 04

단절의 계보 - 일본군 '성노예' 피해 생존자의 소리와 초상 08
왜 성균관 대학교에서는 여성학 수업이 인기가 없는가 10
상영 영화 소개 12

여기기를 말한다 14

女氣 하나 - 그녀의 연애 15

女氣 둘 - 그녀 브래지어를 말하다 16

女氣 셋 - 그녀가 말하는 말쑥한 18

女氣 넷 - 그녀의 눈으로 본 매체 20

1) 광고매체의 여성성

2) 모로노에 관한 짧은 생각

女氣 다섯 - 그녀의 림프, 여학우 휴게실 24

女氣 여섯 - 취업, 그녀의 생각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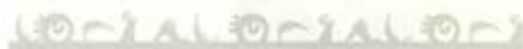
새내기 여학우 응모 글 당선작 32

대학에서 만난 여자친구 이야기



2004 WOM Festival

여女 기氣로



여성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불과 몇 백 년 전만 해도 여성이 교육을 받고, 사회에서 활동하는 것은 상상조차 힘든 일이었지요. 지금, 예전에 비해 많은 여성이 정치에 참여하고, 성폭력의 문제나 여성의 세수업리타에 대해 어느 정도 얘기할 수 있게 된 것은 어찌 보면 큰 발전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평등'이 이루어졌다고 하기엔 아직 무리가 있습니다. 여성 정치권이 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 수적으로도 많이 부족하고, 정치하는 여성들도 진정으로 여성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주지는 못하고 있지요. 또한 아직도 사회의 이곳저곳에서는 성폭력이 발생하고 있고, 그 해결 또한 그리 쉽게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적으로, 여성 취업률이 남성의 취업률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낮고, 취업 이후에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그녀들은 수많은 차별과 폭력을 경험합니다.

이제 그녀들의 목소리와 움직임은 힘껏 날아올라야 합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과 억압을 받지 않고, 진정한 양성평등을 이루기 위해서는 모두가 여자기력으로 모여, 여자기력으로 날아올라야 합니다.

여女 기氣로 날아오르다.

날아오르다

여女 기氣로 날아오르다

개막식

“女氣발산 체육대회”

시간 : 11월 2일(화) 12시 - 2시

장소 : 금잔디 광장

종목 : 공기(개인전), 배드민턴(복식), 팽봉(4-5인), 사방치기(2-4인)

- 공기 개인전은 1위와 2위에게 상품을...
배드민턴, 팽봉, 사방치기는 각각 1위에게 상품이 주어집니다.
- 참가자 전원에게는 참가상을 드립니다.
- 신청은 체육대회 직전 2일 12시 이전까지 받습니다.
- 문의 : 총여학생회(760-1430, 총여학생회장 011-9193-1530)

「단절의 계보」사진전시회

- 일본군, '성노예' 피해 생존자의 소리와 초상

시간 : 11월 1~3일 12시 - 6시

장소 : 금잔디 식당 앞



성폭력 예방 캠페인

시간 : 11월 3일(수) 2시 - 4시

장소 : 금잔디 광장

한국여성민우회 가족과 성 상담소와 함께 성폭력 통념 징검다리도 건너고,
성폭력/ 성매매 실사도 보고, 생리주기 팔찌도 만들어요^^

여성영화제

1) 바그다드 카페 (퍼시 애드론 감독)

시간 : 11월 2일(화) 6시

장소 : 학생행사장

공파예요~ 많이 보러 오세요^^

2) 낮은 목소리 (변영주 감독)

시간 : 11월 3일(수) 6시

장소 : 퇴계인문관 31609 강의실

낮은 목소리는 1인 당 1,000원 씩 입장료를 받습니다.

- 이 수익금은 전액 <나눔의 집>에 후원됩니다.
(나눔의 집은 태평양전쟁 말기, 일제에 의해 성적 희생을 강요당했던
생존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모여 살고 있는 삶의 터전입니다.)
- 티켓 구입은 총여학생회(760-1430, 총여학생회장 011-9193-1530)로 문의주세요.
- 티켓은 상영 직전 상영 장소에서도 판매합니다.

여성학 연계전공 미리보기

시간 : 11월 4일 (목) 2시 - 4시

장소 : 600주년 기념관 506호

주제 : 여성학 입문(김엘리 교수님) 성과 미스미디어(유선형 박사님)

여성학 연계전공이 있는지도 몰랐나요? 있는 건 알았는데 어떤 과목이 있는지 무엇을 공부하는지 몰랐어요? 그럼 '여성학 연계전공 미리보기'에 오세요^^
(수업이 있어서 못 오시는 분들! 걱정 마세요^^ 검색계 드릴 수 있습니다)

배양식

“氣上이변 파티”

시간 : 11월 4일 (목) 6시

장소 : 학생회관 4층 학생행사장

프로그램 : 에이프릴 사위의 축하공연, '선녀와 나뭇꾼' 콩트,

스윙댄스 보고 배우기, 칵테일 만들어 마시기

女氣바로알기 퀴즈, 「섹스, 젊은이들을 위한 가이드」 상영 등

- 입장 티켓은 1인 2,000원입니다.
(티켓 한 장으로 칵테일 1잔 or 병맥 1병과 물리요이드 사진 1장이 무료로 제공됩니다)
- 氣上이변 파티 수익금 전액은 <나눔의 집> 후원에 쓰입니다.
- 티켓 구입은 총여학생회(760-1430, 총여학생회장 011-9193-1530)로 문의주세요.
- 티켓은 파티가 시작하기 직전에도 판매합니다.^^



여자친구들끼리 여행가기!

지난달까지 진행했던 '여자친구들끼리 손잡고 떠나는 여행'이 올해 스페셜 특집으로 6팀을 지원합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니까 그동안 마음은 먹었지만 신청하지 못했던 분들,

아슬아슬하게 지원에서 떨어진 분들 꼭 신청하세요!!!

지원양식 : 특별한 양식은 없습니다.

단 (여행가는 의도, 여행지 정보, 예산비용, 지원자 소속과 연락처, 여행가는 날짜 등)이 꼭 포함되어야 해요.

지원내용 : 6팀, 한 팀 당 최대 7만원

보낼 곳 : hello1430@naver.com

마감은 11월 15일 자정까지입니다.

- 6팀이 초과될 경우, 여행 가려는 의도가 여자친구들 간의 관계가 잘 드러났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6팀을 선정, 11월 20일에 개별연락을 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것은 위의 메일이나 021760-1430(총여학생회실) 또는 011-9193-1530(총여학생회장)에게 문의해 주세요.

「단절의 계보」 일본군 ‘성노예’ 피해 생존자의 소리와 초상

‘역사는 반복 된다’라는 말은 너무나 유명한 말이지만, 우리가 알게 된 그녀들이 짊어진 역사가 사회 한 구석이 방지되어 계다가 다른 형태로 지금도 재현되고 있다면 우리는 그녀들의 ‘외침’에 어느 정도 귀를 기울이고, 도대체 무엇을 배워왔던 것일까.

1991년 일본군 ‘성노예’(*) 문제가 사회 표면화되었다. 그 때부터 벌써 13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성노예’였다는 사실을 밝힌 많은 여성들이 그 사실을 받아들인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둘러 싸여 돌아가셨고 그 사실을 밝히지 못했던 피해 여성들은 누구에게도 자기 체험을 이야기 하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났다. 지금도 생존해 있는 그녀들은 기대와 절망의 경계선을 왕래하면서 얼마 남지 않은 자신의 생을 살고 있다.

일본군 ‘성노예’ 문제는 ‘일본정부에 의한 공식사과와 법적 배상의 실현’이라는 미해결 과제를 비롯해 현대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제국주의와 식민지 지배] [역사인식] [타인에 대한 차별] [젠더(Gender)/여성의 인권과 현대사회] [전쟁과 국가범죄] [국내외의 성매매] 등, 지금 이 순간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들은 잇달아 발생되어 우리들에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 반면에 동시대를 살아가는 그녀들과 우리 사이에 생긴 ‘틈’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깊다. 그렇기 때문에 ‘위안부’라는 말은 피해 당사자들의 존재를 놓아두고 혼자 걸어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

그런 일본군 ‘성노예’ 문제를 둘러싼 사회상황 속에서

‘단절의 계보’라고 지은 이번 전시회의 ‘목소리’와 ‘초상’의 공동작업은 그녀들과 우리의 사이를 결정적으로 분리하고 있는 ‘단절’의 재인식으로부터 시작된다. 또한 어떤 형식으로 그녀들을 기억해 나가야 할지, 그리고 그녀들의 계속적인 ‘외침’에 대해 어떻게 ‘응답’해 나갈 것인가를 제안해 볼 것이다.

그녀들의 ‘목소리’는 ‘식민지 지배와 전쟁’이라는 타인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의 착취와 파괴를 상징하는 일본군의 군가가 되고, 스스로가 믿는 신에게로의 경건한 기도가 되고, 누구나 흥얼거리는 유행가가 되고, 오래 전부터 한반도의 민중들 사이에 넓게 알려져 있었던 전통적 소리가 되고, 끌려간 ‘타국’에서 고향과 가족과 찢어진 상황에서 참으면서 외웠던 이국의 노래가 되고, 어떤 때는 스스로의 감정대로 가사를 바꾸어 부른 것으로 우리에게 들려진다. 그것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공포’와 결코 사라지지 않는 ‘고통’의 기억을 안으면서도 각자가 현재까지 ‘생존’해왔다는 것에 대한 증명이고 그녀들이 걸어온 개인사의 중요한 일부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한 장의 초상사진은 그녀들과 우리들을 연결하는 장치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사진 속에는 미동하지 않는 그녀들과 대치하는 순간, 그녀들은 오히려 그녀들을 보고 있는 사람들을 난반사처럼 우리들을 응시하기 시작한다. 같은 앵글, 같은 프레임은 일본군 ‘성노예’ 제도의 피해자였던 공통분모를 의미한다. 그러나 각 사진 속에서 등장하는 여성들은, 이름을 가진 명백한 ‘개인’이고 우리들의 앞에 현재화한다. 그리고

우리들이 지금도 살고 있는 가부장제 사회에서 권리를 짓밟히고 있는 여성으로서, 상처 준 것에 대해 존엄의 회복을 계속 요구하는 한 인간으로서 ‘침묵의 소리’로 우리들에게 조용히 말하기 시작한다.

이 전시회에서 ‘목소리’가 상징되는 소리를 통한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성과 ‘초상’이 시각적 표현에 의한 총체에서 개체의 전환을 통해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이 보이는 존재로서 새로 기억되기를 원하는 것과 같이, 가혹한 ‘생’을 살아온 ‘생존자’로서의 그녀들에게 정성스러운 경의와 끝없는 사랑, 그리고 깊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 <작가 이야기>

(*)지금도 일반 사회에서는 ‘정신대’ 또는 종군 ‘위안부’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① ‘정신대’라는 단어는 강제 ‘근로노동자’를 의미 ② ‘종군’이라는 단어는 자신 스스로가 봉사했다는 의미 ③ ‘위안부’라는 단어 자체가 가해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사용했던 표현이라는 것을 고려해서 이번 전시회에서는 ‘정신대’나 ‘종군위안부’가 아니라 피해자들의 실체를 의미하는 일본군 ‘성노예’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단절의 계보」는 올해 8월 11일부터 22일까지 나눔의 집과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의 주체로 진행되었다. 그 때 전시되었던 사진 15점과 사운드 자료를 몇 몇 대학에서 전시할 수 있도록 나눔의 집 측에서 도움을 주었고, 본교에서는 11월 1일부터 3일까지 금잔디 식당 앞에서 전시할 예정이다.

왜 성균관대학교에서는 여성학 수업이 인기가 없는가?

여성학은 이화여자대학교를 시작으로 많은 학교에서 강의가 열렸고, 이곳 성균관대학교에도 2000년부터 여성학 연계전공이라는 이름으로 여성학 강의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비록 정식적인 학과가 아닌 '연계전공'이지만 그것을 시작으로 대학 내에서 여성학이 자리 잡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여성학 수업을 보면 안타깝기 그지없다. 그나마 개설된 수업도 많지 않을뿐더러 수강하려는 학생이 적어 폐강 위기에 있는 수업도 간혹 있다.

그렇다면 왜 성균관대학교에서는 여성학 수업이 이렇게 인기가 없을까? 물론 학문으로서의 여성학에 관심을 갖는 학우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문제점도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여성학 연계전공 자체가 가지는 문제점을 살펴 보았다. 이번 '여성학 연계전공 미리보기'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학우들로부터 여성학 연계전공의 관심을 유도하고, 더불어 그 관심이 여성학 수업의 질적 향상을 위한 목소리로 나아가길 바란다.

1. 커리큘럼의 문제

연계전공 수업을 들어본 많은 학우들이 말한다. "너무 들을 게 없다"고... 이것은 다양한 뜻을 함축하고 있는 표현이다.

우선 개설 과목수가 너무 적어서 선택의 폭이 좁다는 점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두 번째 수업의 내용이 여성학 전공수업으로서 부적절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여성에 관한 수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여성학 수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성주의적 관점이 우선되어야 여성학 수업이라 말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본교의 여성학 수업 중에는 땀땀 맞기 그지없는 과목들도 다수 있었다. 수업을 담당하시는 선생님 중에 여성학을 전공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다는 것도 문제다. 전공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담당 선생님에게 그 전공에 대한 일정 수준 이상의 경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여성학연계전공에서는 그것이 지켜지지 않는다. 성차별적인 사회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갖고 현실의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 함께 고민해야 마땅한 여성학 수업이 여성주의적 관점이 빠진 채 진행된다면 수업이라 말하기조차 무색해진다. 이는 단지 수업으로서 의미가 없는 데 그치지 않고 오히려 기대하고 수강한 학생들에게 여성학에 대한 오해와 실망까지 가져온다.

마지막으로 각 수업의 내용이 거기서 거기라 몇 과목 듣고 나면 더 이상 새로운만한 내용이 없다는 뜻일 수도 있다. 수강신청을 위해 막상 수업계획서를 열람해보면 예전에 들었던 수업 혹은 지금 동시에 개설된 다른 수업의 내용과 별반 다름이 없어 허탈해진다. 여성학은 다학문적이고 간학문적인 특성상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강좌가 개설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 '입문'이나 '개론'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 수업이 너무 많다.

2. 과다한 이수학점과 제한된 연계범위

여성학을 연계전공으로 하려던 사람들은 이수학점 앞에서 주저할 수밖에 없다. 복수전공 이수학점보다 9학점이나 많은 42학점! 남은 학기 내에 학점을 모두 이수할 수 있을까 하는 부담은 자신의 전공이 여성학과 연계과목으로 인정되지 않는 학우들에게 더욱 커진다. '학기 당 개설된 과목수가 겨우 이 정도인데 정말 제때 졸업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은 뭐야. 내 주전공은 연계과목도 아니라 동시이수 되는 수업이 하나도 없잖아'로 이어진다. 앞에서 언급했듯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보자면 성차별적인 사회 구조 속에서 축적되어온 기존의 학문들을 모두 새롭게 다시 쓸 수 있고 때문에 여성학은 다학문적, 간학문적 특성을 지닌다. 비단 이수학점에 대한 부담 때문만이 아니라 이러한 학문적 특성도 고려하여 모든 주전공에 연계과목이 설치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현재 본교 여성학연계전공의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문제들은 연계전공을 시행하는 학교가 애초 여성학에 대한 이해가 일차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로 인해 여성학에 관심을 갖고 수업을 직접 듣거나 연계전공으로 하는 학생들이 적기 때문에 그 문제를 더욱 소홀히 여기게 되는 점도 있다. 그래서 이번 '여성학 연계전공 미리보기'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학우들에게 여성학연계전공을 알리고 그것을 통해 장기적으로는 여성학 수업의 질적 향상을 가져올 수 있길 바란다.



상영 영화 소개

낮은 목소리

한국 / 1995년 작 / 다큐멘터리

감독 변영주

출연 나눔의 집 할머니들

내용 2차 세계대전 당시 끌려가 일본군 성노예가 되었던 한국인 할머니들의 현재적 삶을 통해 전쟁이 여성에게 얼마나 비인간적이고 폭력적인 상황을 강요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한국 최초의 극장에 개봉된 다큐멘터리 영화. 억울한 삶을 보상받지 못한 채 생의 막다른 골목으로 다다르고 있던 '나눔의 집' 할머니들에게 (낮은 목소리)의 카메라는 친구처럼 다가간다. 할머니들은 카메라 앞에서 노래를 부르고 이야기도 나누며, 낮지만 강렬한 목소리를 토해낸다.

바그다드 카페 (Out Of Rosenheim / Bagdad Cafe)

서독/구 / 1988년 / 코메디, 드라마

감독 파시 에드론

출연 마리언노 세이지브레트, COH 파운데이션, 잭 켈렌스, 크리스틴 카우프먼

모니카 캄하운

내용 전혀 다른 두 여인이 사막에서의 우정을 그린 독특한 이야기를 담은 일종의 로드 시이드 무비. 독일에서 미국으로 남편과 여행을 왔지만 남편과 다투고 캘리포니아 사막에 혼자 남겨진 자스민은 홀로 사막을 정처 없이 헤매던 중 도로변에 위치한 허름한 모텔 '바그다드 카페'에 도착하게 되고 그곳에서 언제나 화만 내는 카페의 어주인 브랜다가 만난다. 자스민은 브랜다가 자리를 비운사이 혼자 카페 대청소를 하는가 하면 우연한 기회에 손님에게 마술을 보여주게 된다. 이 마술쇼가 알려지면서 카페는 활기를 찾게 되고 어느덧 자스민은 바그다드 카페에 없어서는 안될 가족으로 자리를 잡아간다.



나눔의 집 소개 www.namum.org

《나눔의 집》은 태평양전쟁 말기 일제에 의해 성적 학살을 강요당했던 생존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모여 살고 있는 삶의 터전입니다. 1992년 6월에 결성된 《나눔의 집》 간립추진위원회는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자는 취지로 불고게 및 사회 각계에 모금운동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1992년 10월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서 처음으로 《나눔의 집》 개소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명문동, 혜화동을 거쳐 1996년 12월 조영자님께서 기증해 주신 경기도 광주군 퇴촌면 소재 650여명의 대지에 180여 평생활관 두 동과 법당 및 수련관으로 사용하는 한 동의 노인 주거복지시설을 신축하였습니다. 현재는 850여명의 대지에 98년개관한 역사관을 포함 300여명의 건물이 있습니다.

《나눔의 집》에 거주하는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은 매주 한글수업과 함께 그림수업을 통해 악하신 그림으로 수 차례에 걸쳐 국내외에서 그림전시회를 개최함으로써 과거 일제의 일본군 위안부 만행에 대한 진상을 역사에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수요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일본 대사관 앞에서의 수요시위를 통하여 일제의 일본군 위안부 만행을 폭로하고 일본이 과거사에 대하여 진정으로 참회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나눔의 집》은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을 통하여 같이 후손에게 정신대에 대한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하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

2003년 현재 전국에 128명의 할머니들이 생존해 계시고 《나눔의 집》에는 10명의 할머니들이 살고 계신다.

나눔의 집 소개

여女.기氣.를.

말.한.다

- 女氣 하나 그녀의 연애
- 女氣 둘 그녀 브래지어를 말하다
- 女氣 셋 그녀가 말하는 알코올
- 女氣 넷 그녀의 눈으로 본 세계
11 광고대행 여성상
12 포르노에 관한 많은 생각
- 女氣 다섯 그녀와 씬티 어학우 휴게실
- 女氣 여섯 취업, 그녀의 생각

女氣 하나

그녀의

연애

현재의 내 애인은 독실한 기독교신자~♡ 우리나라 대부분의 남자들이 그렇듯 (적어도 내가 보기에 그렇다고) 암전하고 이쁘고 침한 여자를 좋아하는 보수적 경향이 있는 사람이다. 물론 처음에는 잘 보이라고 예쁜 척 임 어린 척 안 먹는 척 같은 내용을 말아서 마음을 잡는데 성공~! 하지만 그렇다고 장기전으로 들어가기까지 늘 내용을 말면서 살수는 없지 않은가? 무릇 형제 자매 사람은 마음이 맞아야 하는 법. 오래오래 이쁘게 함께 지내려면, 서로 어떤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정도는 깊게 깊게 공유해야 한다는 것이 나의 연애탈학이다.

그래서 시도한 첫 번째는 페미니즘 소개하기~! 많은 사람들이 페미니즘이 여성우월주의라고 알고 있다는 것을, 본 페미니스트 잘 알고 있기에 입장 바꿔 놓고 생각해볼 수 있는 탁월한 소설 현면을 소개해주었다. 바로 기묘장제 사회에서 억압받는 남성들의 구구 절절한 사연들을 묘사한 소설 '이갈리아의 딸들'. 이 소설을 읽은 덕분에 나의 애인은 여성들이 현재 사회에서 어떤 차별을 받고 있는지 이해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시도 성공~!~ 이제 나와 나의 애인은 두 번째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 중이다. 그것은 바로 나이주의에 반대하기. 나의 애인은 나보다 세 살이 많은, 속칭 '오빠' 시대. 하지만 그게 뭐? 나이가 많다는 것은, 사실 별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다. 나이를 통해 권위를 내세우는 사람들에게만 의미가 있을 뿐. 그래서 나는 애인에게 과감히 서로 반말할 것을 제안했다. 평등하고 수평적인 관계를 만들고 싶어서라고 설명하자, 애인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받아들였다. 오오, 처음에 그 보수적이던 경향도 남자 맞아? ㅋㅋ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 중이다. 바로 '결혼'에 관한 이야기 진행 중! 아, 이간 좀 어렵다. 육이며 호주제며 할 이야기가 많거든. 하지만 지금까지의 진행과정으로 보아, 서로 이해하고 이야기를 들어주려는 자세만 있다면, 문제없다고 본다.

그와 나의 평등한 연애관계를 위해 앞으로는 아자아자 파이팅

초등학교 때인가. 많은 여성들이 그 때쯤에 팔경도 하고 가슴도 나오고 하니 나도 그 때쯤 브래지어를 처음 입기 시작한 것 같다. 생리를 시작할 때쯤, 본격적으로 가슴이 크레는지 가슴 주위가 빠근하게 아프다고 하니깐 엄마가 시장에서 하얀색 브래지어를 사오셨다.

“여자들은 다 이거 차야하는 거야. 이걸 안 하면 가슴이 처져서 못 써.”

처음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여자들은 브래지어를 하는구나 하는 생각에 내 가슴보다 약간 큰 사이즈라 이래저래 곱둑고 불편했는데도 꾹꾹하게 하고 다녔다. 지금 생각해보면 처질만한 가슴도 없었는데 왜 그랬는지... 또 나중에 알고 보니 브래지어 한다고 해서 가슴 처지는 걸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더라고. 가슴이 처지는 건 운동을 안해서이지 브래지어 때문이 아니라고.

하지만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지금에도 이 갑갑하고 가끔은 와이어의 압박으로 아프기도 한 브래지어를 쉽게 벗을 수는 없다.

왜냐고?

입는 게 당연하다고 배웠으니까? 모든 여자들이 다 입으니까? 아니면 길을 때마다 움직여야 하는 것이 만행해서? 유두가 돌출된 게 다른 사람들 눈에 띄기라도 하면 창피해서? 나를 포함한 많은 여성들은 어쩌다 어깨가 드러나는 옷을 입을 때마다 어깨끈 때문에 신경 써야 하고, 무더운 여름날 후끈거리고 땀 때문에 몸에 달라붙어서 짜증나게 하는 브래지어를 벗지 못하는 걸까? 또, 브래지어가 가슴을 아름답게(?) 모아주고, 올려주듯 여성의 몸 이곳저곳-네, 허리, 엉덩이, 허벅지-을 꼭 조여 주는 속옷들은 왜 지구 세상에 나와서 이걸 입지 않으면 ‘아름답지 못하다’ 하여 여성의 몸을 볼에 맞추려 할까? 사실, 이런 속옷을 입으면 혈액순환도 잘 안되고 - 브래지어는 심장에 치명적이라 하자- 여성의 몸에 좋은 기분을 해 주지 못하는데 말이다.

브래지어를 최초로 고안해 낸 사람이 남자라는 사실이 알려주듯이 대부분의 소위 ‘기능성 속옷’이라 불리는 조이기 속옷은 여자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오직 여자의 몸을 그저 보기 아름답게 만들어 눈요깃감으로 삼으려는 누군가의 사욕한 마음이 여자들의 몸을 마음대로 억누르고 아름답다고 찬사를 보내면서 입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속옷에 관한 진실이 밝혀졌으니, 속옷에 살이 쪼개서 고민이었던 여성들이여, 더 이상 그들의 발칙한 언행에 현혹되지 말고 숨을 크게 들이켜 봅시다!

여성의 몸을 들어매는 것들

브래지어 - 가슴을 보호해주고, 가슴이 처지는 것을 막아주는 걸로 흔히들 알고 있지만 그건 사실이 아님. 가슴이 처지지 않기 위해선 운동을 해야 하는 거고, 브래지어를 많이 하면 오히려 안 좋은 면이 더 많아. 사춘기 때 볼록 솟아오르는 가슴이 부끄럽거나, 혹은 엄마의 강요에 의해서 꼭꼭 들어매 소녀들은 성장 호르몬이 제대로 통지 않아서 잘 자라지 못한다는 사실, 혹시 알고 있니?

코르셋 - 코르셋이라는 영화 기억해? 거기 나오는 여주인공이 뚱뚱한 몸을 날씬하게 보이려고 코르셋을 즐리대잖아. 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어찌나 숨이 막히는지. 가슴부터 엉덩이까지 아름다운 볼매를 만들어준다고는 하지만, 사실 이게 사람 잡는 게 아니고 뭐겠어? 비비안 리라는 배우는 하도 즐리대서 나중에서 죽어서 보니까 갈비뼈가 다 부러지고 내장이 다 가슴위로 올라 왔다고 하잖아. 정말 웃기는 세상이야.

웨이트 니퍼 - 이런 주로 허리를 즐리대는 것 배 나온 사람, 허리가 잘록하지 않은 사람들이 입고 허리를 잘록해 보이게 하는 거지. 요즘에는 신축성이 좋은 섬유를 사용한다고 하는데, 예전에는 고래수염이나 철강을 넣었다는데 끔찍하지 않아?

올인원 - 브래지어, 웨이트 니퍼, 거들까지 하나로 있는 물건. 가슴에서 엉덩이까지 이어지는 여성의 부드러운 곡선을 만들어 준다.

거들 - 이런 주로 아랫배랑 엉덩이를 조여 주는 속옷 탄력적인 힘을 만들기 위해 모아주고, 올려준다. - 요즘에는 엉덩이가 빈약한 사람을 위해서 히프패드라고 속에 솜이나 스펀지가 들어 있는 걸 엉덩이에 끼우는 것도 있더라고.

근데 이런 속옷들이 가슴은 뽕뽕하고, 허리는 잘록, 히프는 탄력이 있어 보이게 해서 ‘아름다운 몸’을 만들어 준다고 하는데 꼭 그런 몸만이 아름다운 것일까? 사람마다 어울리는 것 좋아하는 것이 다르듯이 아름다움이라는 것도 개인마다 다를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 사회는 여성의 몸이나 외모에 대해 한 가지 기준만 제시하며 그 기준에 도달하려고 너무 강요하는 것 같아. 저자~ 이제부터는 자기 몸에 대해서 이런저런 불만만을 표현하지 말고 가끔은 작은 가슴에 딱 벌어진 어깨에 볼록 튀어나온 아랫배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자고 뽕뽕하진 하지 않아도 내 작은 가슴이 헤쳐내 보이는 날이 있을 테니까^^



그녀가 말하는 말語!

1. 베레 한자 공부하다 분노하다!!

2급 한자검정시험을 열심히 공부하던 우리의 베레 女(여자)애를 부수로 하는 한자들이 나온 페이지에서 짜증이 나 책을 덮었다. 페이지 가득 실린 한자 중 好(좋을 호)를 빼곤 대부분이 淸(시할 간, 淸(정)할 방, 淸(정)할 요, 淸(정)할 요, 淸(정)할 방, 淸(정)할 방, 淸(정)할 방 등 부정적인 뜻이었기 때문이다(사실 好라는 글자도 남자와 여자가 같이 있어서 좋다는 어원을 가진 지극히 여성에 중심적인 사고의 반영이잖나.)

분명 화가 나고 기분이 나쁜데 어느덧 '여자'와 '부정적 이미지'를 그했다고 학습되어 왔기에 이전 무의식중에 익숙해져 버린 부정성들'을 연결시켜 글자들을 쉽게 외워버린 스스로를 발견하고 더욱 씁쓸해졌다. 왜 나쁜 것에서만 Lady First인가!

2. 나도 속 시원히 욕하고 싶다!!

불쾌하다. 저 밑에서부터 목까지 화가 치밀어 오른다. 하지만 순간 옆 사람이 내뱉은 욕 때문에 오히려 기분이 더 찜찜해진다. 단어들의 뜻을 몰랐을 때는 그냥 소리가 거세고 발음이 격하다는 느낌만으로 기분이 상했었는데 그 어원을 알고 난 후론 둘을 때마다 불편하다. 남을 모욕하고 자주는 욕성들은 대개 성적인 폭력성을 내포하거나 성 비하적인 것들이기 때문이다. 개새끼나 니미랄 등은 엄격히 따져보면 욕하는 사람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디가 보다 그 사람의 어머머나를 공격하는 것이다. 씨발입혔은 여성의 성기 혹은 성교를 비속하게 표현한 '입'과 '질'이 합쳐진 것으로 강간을 한다는 의미를 갖는데 강압적이고 확대하는 혹은 난잡한 성교를 뜻하는 영어 Fuck과 굉장히 유사하다. 또 남성의 성기를 지칭하는 말로 평소 '같은/~까/~나' 등과 결합하여 자주 쓰이는 좆이라는 말도 있다.

물론 욕을 사용함에 있어서는 성별에 구분이 없지만 그것을 생산하고 향유하는 주체는 남성적인 사회이다. (물론 좆의 경우는 드물게 남성 비하적인 욕설임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으로 남성들이 더 많이 애용한다는 점에 유의하기도 하다) 그 속의 성폭력성은 굳이 나를 향한 욕이 아닐지라도 듣는 다는 것만으로 괴로움과 불쾌함을 준다. 아, 나도 가끔은 속 시원히 거리낌 없이 뱉을 수 있는 대안적인 욕설이 있었으면 좋겠다.

한 사회의 성향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것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것도 언어이다. 언어는 그 사회의 이데올로기를 담아 형성되고 그것이 사용됨으로써 기존의 이데올로기를 더욱 공고히 하는 역할을 한다. '말(話)을 가진 자 권력을 가진 자'라는 말이 있듯이 언어는 그 사회 권력층의 시각과 의지를 대변하여 또 그 힘과 영향력은 보이지 않지만 막강하다.

사소해 보이지만 위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언어라는 것도 결코 중립적이지 않다. 남성 중심적인 사회 내에서는 우리가 표현하는 언어는 역시 성차별적인 요소를 내포한다. 그래서 단어는 글자 그 자체로만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용되는 사회적 맥락 안에서 해석되어 진다. 남성을 지칭하는 용어와 여성을 지칭하는 용어를 생각해 보라. '사내', '남'이라는 단어는 그저 '남자'를 뜻하는 다양한 표현 중 하나처럼 느껴지는 데 비해 '계집', '년'이라는 단어는 뭔가 비하적이고 경멸적인 뉘앙스를 띤다. 젊은이나 10대 중후반의 미성년을 뜻하는 '청년', '청소년'이라는 단어는 국어사전 뜻풀이에서도 인정하듯 대개 젊은 남성을 지칭한다. 그 속에 여성은 없다. 결혼하지 않은 성인 남성을 표현하는 단어인 '총각'과 달리 여성의 경우는 순결성이 강조된 '처녀' 혹은 좀 더 성적대상으로 암시된 '아가씨'로 구분된다. 아저씨와 아줌마의 차이도 생각해 보라. 아줌마가 내포한 사회적 이미지-평머짐하고 뚱뚱한 외형적 이미지와 긴장감 없고 무딘 무성적 존재는 결코 이 단어를 단순히 혈연관계가 없는 어른이자란 본뜻으로만 해석할 수 없게 만든다. 아줌마는 제 3의 성이라는 무스것말이 괜히 나왔겠는가! 흔히 고사(高壽)가 아닌 나이 든 사람을 존중하여 부르는 호칭으로 자주 쓰이는 선생(先生)이란 단어도 남성에겐 적 용될 뿐이다.

이렇듯 언어 속에서 드러난 여성은 이중법적으로 구분되게 내수결하고 보호해야 할 대상 아니면 천박하고 하찮은 대상, 한 독립체로서 인정되지 않거나 누구의 부인, 어머니, 딸 같은 부차적이고 부수적인 인물로 존재한다. 가치절하 된대여성의 경우 남성과 달리 순수하게 개인의 존재감만으로 존중받는 호칭이 없어 언제나 여성으로서의 성별이 강조된 단어를 일깨인다.

3. 여성의 말투 대 남성의 말투

얼마 전 방영했던 인기 만화책 소재로 한 "물하우스"라는 드라마를 보았는가? 처음 본 순간부터 반말을 한 이 영재비 뿐만 아니라 한자원숭이도 본은 시간이 지나고 둘이 결혼을 한 후에도 서러워 눈물이 날 때도, 화가 나 싸울 때도조차도 고백고백 존대말을 한다. 그녀의 이러한 점은 아무리 고집부리고 자주 화내도 결코 두렵지 않은 마냥 사랑스러운 이미지를 선사한다. 이와 달리 "물하우스" 이전에 방영했던 같은 방송사 드라마 "복싱공주"에서는 친구와 동생인 한신우(이완) 본가 자신보다 5살 많은 마영희(김정화) 본에게 처음부터 반말을 하고, 사귀기로 한 후엔 곧 바로 알아서 "영희야"하며 막 부른다. 이는 아무리 터프하고 탈탈해도 나이가 많고 심지어 힘이 세어 도둑 중 마영희는 학창시절 초강력물트러파워의 투포환 선수였다! 역시 남자가 보호해줘야 할 어린 여자라는 점에서 사랑스러워질 수 있다. 왜 최근 인기를 끌고 있다는 한 고등학생 가수의 노래 "내 여자라니까" 가사만 봐도 내 여자라고 생각되면 나이는 상관없이 당연히 '너'라고 부르고 있지 않는가?

지금 여기에서 연애해도 반말하면 안 된다 혹은 사귀면 당연히 말을 낮추는 둘을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여성의 말과 남성의 말이 다르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다. 앞서서도 언급했 듯이 언어는 사회의 권력 관계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성별에 따라 말투가 다른 것은 아직도 여성이 차별 받는 존재임을 말한다.

여, 기, 물, 말, 한, 다.

그녀의 눈으로 본 세계

- 1) 광고매체의 여성성
- 2) 포르노에 관한 짧은 생각



광고매체의 여성성

세상의 여러 담론 중에서 가장 자극적이면서 또 극적인 대립을 보이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성에 관한 것이다. 자신이 선택할 수 없고, 만들 수도 없으며, 태어날 때부터 이미 존재하고 있는 기온인 성별. 우리는 규정되어 있는 성별에 의해 여러 가지 통제를 받으며 사회화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성의 구분과 역할이 후천적으로 결정된다는 주장과 생물학적으로 이미 결정된 것이라는 주장이 대립되는 가운데 여자아이에게는 바비 인형, 남자아이에게는 장난감 기관총이 주어지는 것은 매우 당연한 모습으로 여겨진다. 문화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역사적으로 대부분의 사회는 기부장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여성은 늘 남성에 비해 약자였고,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 되는 동시에 그녀를 보호하는 남성의 소유물처럼 여겨져 왔다. 21세기에 접어든 지금, 사회는 엄청난 변화를 겪으며 발전해 왔다. 그러나 문제는 사회가 변하는 속도와는 정 반대로 성별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들은 여전히 걸음마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산은 남성의 몫이었고 소비는 여성의 몫이었다. 돈을 벌어들이는 남성은 그만큼 힘을 갖게 되고, 여성은 자연스럽게 공적인 영역에서 멀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남성끼리의 관계는 업적이나 능력으로 이루어지지만 남녀간에는 감정적인 것이 우선시되는 경향이 점차 관습화되었다. 결혼 이후에는 그러한 관계가 더욱 당연해 지는 것처럼 보인다.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이라는 왜곡된 인간관계가 고착화되는 것이다.

광고는 사회화 과정에서 중요한 매커니즘으로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광고에서 제시하고 있는 성별에 대한 묘사가 사회적 인식의 규정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새로운 상품이 소개되면 거기에 발맞춰 새로운 광고가 탄생하게 된다. 그러나 분명 현실적으로 여성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고에서는 아

직도 전통적인 여성상이 주를 이루고 있다. 최근 들어 광고에 나타난 여성상의 연구가 활발해 지고 있는데 이는 그만큼 광고의 영향력이 우리 사회에서 크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광고의 여성상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는 움직임도 커지고 있는 것과 발맞추어 광고에서 드러나는 여성상을 정확히 인식하고 잘못된 점들을 점차 개선시켜 나가야 할 필요성이 절실한 때이다.

우선 광고에서 드러나는 여성의 모습을 살펴보자. 물론 최근 광고에서는 과거처럼 극단적인 '현모양처'의 모습은 거의 사라지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아직도 전형적인 여성 묘사의 틀에서는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광고에 지배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미지는 어머니로서의 이미지와 아름답고 섹시한 여성으로서의 이미지이다. 물론 이러한 이미지들에서는 비현실적인 모습이 다분히 묻어난다. 먼저 아름다운 여성으로서의 이미지를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화장품 광고에 등장하는 모델들을 통해 그것을 볼 수 있다. 대부분의 화장품 광고에 등장하는 여성들은 너무나 아름답다워서 부당스럽기까지 할 정도다. 모델이 화장품을 광고하는 것인지, 화장품이 모델을 광고하는 것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화장품을 광고는 모델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한다.

그리고 그 광고를 보는 많은 여성들은 자신의 외모와 광고의 모델을 비교하곤 한다. 물론 남성들은 화장품 자체에는 신경조차 쓰지 않는다. 한 화장품 회사에서 '외모는 여자의 경쟁력이다'라는 카피 문구를 사용하여 반향을 일으킨 적이 있었는데 이는 광고가 만들어내는 여성의 이미지가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하겠다. 두 번째로 광고 속의 어머니 상에 대해 살펴보자. 인자하고 자상하며 무엇보다 오직 가정에만 모든 신경을 쓰는 모습은 많은 어머니들의 실제 삶과는 괴리감을 느끼게 하는 부분이 다분하다. 정신적 스트레스와 육체적인 가사 노동에 대한 언급은 의약품 광고를 제외하고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성적 해학을 지닌 여성의 이미지이다. 흔히 성적 소구를 사용한 광고들, 즉 카피나 광고 모델의 액션에 의해 성적인 것을 연상시키는 광고나 아예 정면으로 여성의 육체를 이용하는 광고도 여성의 이미지를 고착화시키는 문제를 야기시킨다. 몸매가 완전히 드러나는 의상을 입고 선정적으로 춤을 추는 모델은 남성의 성적인 시선을 한 몸에 받는 대상이 된다. 여성의 육체가 남성의 시선을 끌기 위해 성적 흥미를 위해 광고에 이용된다는 것은 상품뿐만 아니라 여성의 육체 또한 하나의 상품이 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렇다면 이러한 광고들이 야기하는 문제점은 무엇인가. 광고는 무의식에 작용하는 매체이다. 아무 생각 없이 지나치지만 15초 안에 담겨 있는 강한 메시지는 이미 기억 안에 각인된다. 남녀를 불문하고 광고속의 이미지는 평범한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안기기에 충분하다. 광고 안에서 드러나는 완벽한 남성상과 여성상에 대한 묘사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상대적 열등감을 느끼게 하고 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대부분 긍정적으로만 묘사되고 있는 남성과 달리 지나치게 남성에 의존하는 여성의 모습이 광고 안에 그려짐으로써 마치 여자의 행복이 남자에 의해 좌우되는 듯한 무의식을 심어주는 광고들이 범람하고 있다는 것이다. 고급스러운 인터리어로 가득한 주방에 냉장고를 쓰다듬고 있는 아름다운 여주인공의 모습이 보인다. 냉장

고에 장식된 모넨에 남편이 준비한 빨간 꽃다발이 나타나고 환하게 미소 짓는 여주인공 곧 이어 들어온 남편의 품에 안기며 흘러나오는 커피는 '여자가 행복해요'이다. 비록 남성의 얼굴이 직접적으로 드러난 광고는 아니지만 이브닝드레스를 입고 있는 여주인공이 주방에서 냉장고와 능력 있는 남편에 의해 여자가라는 가치의 행복을 느낀다는 설정은, 남편을 잘 만나서 여자가 행복하다는 식의 가치를 무의사적으로 심어주기에 충분하다. 아직도 광고 속의 여성의 직업은 대부분이 전업 주부이고, 가정/주방 용품은 여성 모델을 쓰는 것이 당연해 보인다. 반면 자동차 광고에는 거의 남성 모델이 등장한다. 이러한 광고는 성 역할을 형성해 나가고 있는 아동이나 청소년의 인식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 연구에 따르면 여성들이 실제로 현실에서 되고 싶은 여인상은 자적이고 용감 있는 여인(약 20%), 귀엽고 사랑스러운 여인(약 16.5%), 성실하고 근면한 여인(15.3%)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광고 매체 속에 드러나는 여성상이 실제 여성들의 선호도와는 큰 괴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모순된 여성상이 광고라는 매체 속에서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굳어지고 있는 것은 장기적 차원에서 볼 때 실제로 선호하는 여성상에까지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근에 유행한 열광, 몽환 되기 신드롬의 광고나 웰빙 트렌드의 광고 역시 문제가 되기는 마찬가지다. 자기 관리라는 것을 정면에 내세우면서 외모나 몸매가 완벽하지 못한 것은 스스로가 노력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주입시킨다. 물론 광고의 모델은 철저한 자기 관리를 통해 완벽에 가까운 모습을 갖춘 여성이다. 당신도 나처럼 될 수 있다는 '몸매 아줌마'의 한마디에 전국의 아줌마들은 탄력 없는 자신의 몸매를 비관했으며, 소모적인 여성 소비문화가 조성되면서 많은 생산적 에너지가 낭비되었다. 이러한 광고들의 특징은 유행을 조장했다가 어느 순간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다는 것이다. 여성의 자원을 외치는 듯 하면서, 내면으로는 오히려 부담을 가중시켜 소비를 촉진시키는 문제점들을 발생시킨다.

수줍음, 순결, 순종이라는 전통적 여성스러움(?)에서는 한걸음 발전하였지만 아직도 우리나라 광고가 가야 할 길은 멀어만 느껴진다. 앞서 광고에서 나타나는 아름답고 세련된 이미지의 여성이나 어머니상이 얼마나 현실과 괴리가 있고 시청자들에게 정서적으로 열등감을 느끼게 하는지에 대해 간략히 언급했다. 물론 최근의 광고에서는 그러한 과거의 전통들이 아주 조금씩 변화하고 있으며 독립적이며 남성을 압도하는 여성의 이미지도 점차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성적 소구를 이용한 광고에서도 오히려 여성이 남성에게 주도권을 갖는 모습이 보이기도 한다. (물론 남성을 사로잡는 여성이 힘은 필요 파벌과도 같은 색시형이긴 하지만 말이다.) 또한 주로 티셔츠만으로 묘사되던 거친 남성의 매력이 조금씩 부드럽고 자상한 이미지로 변모하고 있는 것도 최근에 나타나는 경향 중 하나라고 하겠다. 이것은 Metro sexual한 남성의 이미지가 현실에서 인기를 끌면서, 실제 여성들이 선호하는 남성상이 광고에도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것이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발전적인 결과인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광고도 변해야 한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광고는 엄청난 사회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광고가 사회를 앞서가면 그 만큼 사회 전체의 발전을 앞당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영향력을 가진 광고가 아직까지 구시대적 가부장적 전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더욱이 생산력과 소비력을 동시에 갖추고 있는 여성 소비자의 눈과 마음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이제 더 이상 그러한 광고는 경쟁력을 가지지 못하고 도태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앞으로의 광고는 더 이상 여성을 남성의 물레로 만들어나가는 현실적이며 분명한 자의식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인격체로 묘사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_대중매체와 성의 정치학

포르노에 관한 짧은 생각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최고의 여성 CEO라는 평가를 받는 김태연 사장. 'HE CAN DO, SHE CAN DO, WHY NOT ME?'로 유명한 그녀가 TV에 나온 걸 우연히 본적이 있다. 그녀가 아들들에게 바라는 절대수칙 - 포르노를 보지 말 것. 실제로 그의 아들 중 한명이 TV를 통해 포르노를 본 사실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장면이 나와 사회자와 방청객 모두가 실소를 터뜨렸었다. 그 자리에 앉아 있던 그녀도 같이 웃어줬지만 그녀가 얼마나 씁쓸했는지, 사람들은 이미 그렇게 생각했을 거다. '다 큰 아들들이 그런 거 보는 것도 참 견해다?', '남자들 좀 보면 어때서?', '남자들은 그런 거 다 보면서 크는 거야', '그런거 안보면 남자들 사이에서 얘기가 안통하지.', '나는 그녀가 단지 물리적 입장에서 포르노를 반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없는 집안에 '그것' 없이 태어난 아이 남편에게 학대당하며 살아온 여자. 타국에서 이방인으로, 여자로서 살아온 인생. 그녀는 포르노가 성적 학대라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는 듯 했다. 아들들에게 숨은 가해자가 되지 말라고 하는 것 같았다.'

'포르노는 이론, 강간은 실습'이라는 말처럼 포르노는 남성들에게 여성에 대한 정제적 폭력성을 키워준다. 여성에 대한 가학적 이미지들, 동물적인 근성으로 여성을 정복하는 일련의 영상은 살생의 투영이자 살생으로의 반영인 것이다. 또한, 포르노는 여성의 성욕을 무시하고 있다. 포르노의 제작이 과연 남녀 성 평등의 예로티시즘을 염두에 두고 이뤄졌을까? 사람이란 누구나 성욕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풀어내는 과정도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포르노 속의 여성은 주체적이지 못한 인물로 그려지고 있고, 포르노를 보는 여성들은 '발한다'는 사회적 시선에 여성의 성욕은 증명될 드러내지 못한다.

성적 표현물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은 성에 관한 문화적 금기를 강화시키고 궁극에는 동성애를 억압하는 무기가 된다. 문제는 포르노가 가지는 여성에 대한 폭력성이며, 이번, 포르노에 동조하는 어느 누구도 침묵의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성욕을 부르짖는 남성들이며, 부디 포르노와 예로티시즘을 구별하시길.



여.女. 기.氣. 물. 水. 알. 知. 한. 知. 다. 也.

女氣
다섯

그녀의 스위트, 여학우 휴게실

■ 성균관의 여학우 휴게실은 어디로 달려가는가

"우리학교에는 현재 세 곳의 여학우 휴게실이 존재해요. 학생회관의 정정현 여학우 휴게실, 법대 여학우 휴게실, 그리고 문대 여학우 휴게실이 그 곳이지. 그러나 이들 휴게실은 그것의 직접적인 사용자인 3400 여학우들이 사용하기에는 턱없이 좁고 열악하죠....."

위의 내용을 혹시 기억하는 이가 있는가? 아마도 3.4학년이면서 예전에 총 여학생회 행사에 관심을 기울인 사람이라면 할 수도 있겠다. 위의 문장은 2002년 제6회 올-Festival '여휴랑 놀자 프로젝트' 자료집에 실린 내용의 일부이다.

벌써 2년이나 지난 내용이다. 그럼 2년 후인 지금 무엇이 바뀌었을까?

위 문장 중에서 바뀐 것이 있다면 딱 두 가지 이다. 하나는 '여휴랑 놀자 프로젝트'에서 진행한 여학우 휴게실 이용 공모를 통해 정정현 여학우 휴게실은 '올터'로 이름이 없던 법대 여학우 휴게실과 문대 여학우 휴게실은 각각 '지소담'과 '여꿈'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 또 하나는 2년 전엔 3400여명에 불과했던 여학우의 숫자가 지금은 4000여명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그럼 여학우 휴게실 인을 들여다보면 어떨까?

■ 아직도 여학우 휴게실이 세 군데밖에 없다고?

그렇다. '여휴랑 놀자 프로젝트'를 진행한지 2년이 지난 지금도 여학우 휴게실은 단 세 군데뿐이다. 사실 2년은 그리 놀라운 기간은 아니다. 여학우 휴게실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는 10여 년 전부터 계속 있어 왔고, 여학우 수는 최근 몇 년 사이만도 크게 증가했지만 여학우 휴게실은 언제나 제자리걸음이다.

■ 그래도 세 군데밖에 없으니깐 내부가 많이 좋아졌을 거야. 그지?

안타깝지만 그것도 아니다. 여학우 휴게실의 수는 제자리걸음이었지만 그 충만도를 볼 때는 뒷걸음질 쳤다고 볼 수 있다. 지난 2001년 학생회관의 공간이 재배치 될 때 여학우 휴게실은 이전의 공간보다 더 작은 공간을 배정받았고, 올해(2004년) 법학관 신축 이후 법대 공간이 재배치되면서 지소담은 이전의 법대에 있던 공간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공간을 배정받았다. 여학우 숫자가 배로 늘 때에 여학우 휴게실의 규모는 배로 감소했던 것이다.

■ 그럼 지금 여학우 휴게실은 대체 어떤 상태지?

① **올터**: 학생회관 4층에 위치한 올터는 유일하게 학교에서 관리하는 여학우 휴게실이다. 관리를 담당하는 조교가 있었지만 세 시간에 문을 열지 않는 등의 성의 없는 모습을 많이 보였고, 여학우 휴게실 전체 크기에 비해 조교실의 크기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올해는 몇 번의 재배치를 통해 조교 공간이 딱 필요한 공간만으로 줄어들고, 여학우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상당히 많아진 편이다. 또한 여학생들의 문제를 담당하는 학생부처장 자리가 신설된 이후 여학우 휴게실 관리도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올터 휴게실은 2004년 2학기가 종강하면 바로 확장·개선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총여학생회실과의 공간 재배치를 통해 면적이 이전 올터 면적의 2배 정도로 늘어나고, 수면실·미팅룸·파우더룸·카페 등이 생길 예정이다.

여학우 휴게실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는

10여 년 전부터 계속 있어 왔고,
여학우 수는 최근 몇 년 사이만도
크게 증가했지만 여학우 휴게실은
언제나 제자리걸음이다.

② **여공** : 경제관 지하 1층에 위치한 여공은 '여공'이라는 이름이 생길 당시만 해도 상당히 암담한 곳이었다. 관리자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당시에는 어문인문 학생회가 서지 않았고, 테이블과 소파만 달랑 존재하여 여학우 휴게실인지 버려진 공간인지 구분이 안가는 곳이었다. 하지만 이후 어문인문 학생회에서 관리에 신경을 많이 썼고, 공간이 더 넓은 단대방과 휴게실을 맞아꾸어 공간도 훨씬 넓어진 상태이다. 이렇게 불리는 여공이 많이 개선된 상태이지만 이것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인가의 문제가 남아있다. 동터의 경우에는 학교차원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공간의 관리를 보장받을 수 있지만, 여공은 단대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단대학생회의 유·무, 혹은 단대학생회의 성격에 따라 관리가 될지 안 될지조차 모르기 때문이다. 여공도 학교차원에서 어느 정도의 관리를 하도록 얘기 중이지만 그 대답은 미지수이다.

③ **지소담** : 올해 가장 임을한 곳 신법학관 지하 2층에 있다. 하지만 위에서도 말했듯이 구법학관에 있던 공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래도 구법학관에 있던 휴게실은 작지만 침대, 소파, 테이블, 에어컨 등이 구비되어 있었다. 하지만 신법학관에 있는 휴게실은 너무 좁아서 침대가 들어가지도 못한다. 달랑 테이블과 의자 몇 개가 있을 뿐이다. 지소담은 법대 행정실에서 관리하는데, 행정실에서는 학교에 청대를 놓지 않는 게 학교 방침이라는 말 등을 하며 여학우 휴게실 개선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여학우 휴게실은 필수 공간이다.
공간이 부족하다고 해서
화장실을 없애지는 않는다.
화장실이
모든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필수공간인 것처럼
여학우 휴게실도
항시 성폭력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여성들만의 소통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곳
성균관대학교에서는 필수적인 공간이다.

■ 다른 곳에도 여학우 휴게실을 또 만들면 되는 거 아니?

상식적으로는 그렇다. 다른 대학교를 보면 거의 건물마다 하나씩 여학우 휴게실이 있다. 그리고 몇몇 학교의 경우에는 여학우 휴게실 내에 수면실, 샤워실, 세미나룸 등이 구비되어 있기도 하다. 하지만 이곳 성균관대학교는 여학우 휴게실을 늘려달라는 말만하면 다른 공간도 많이 부족하다는 말로 일관하여 전혀 개선에 주려 하지 않는다. 물론 다른 공간-동아리방, 학화실, 과방 등-이 학생들이 활동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은 알고 있다. 하지만 다른 대학들이 전체적인 학생 복지가 뛰어나서 여학우 휴게실이 많이 있는 것이 아니다. 다른 대학도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동아리방이나 과방 등이 부족한 편이지만 여학우 휴게실을 조금씩 늘려온 것이다.

그것은 기본적인 인식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여학우 휴게실에 대해서 남으면 하나 주는 공간'쯤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휴게실을 늘리려고 하지 않는 것이다. 여학우 휴게실은 필수 공간이다. 공간이 부족하다고 해서 화장실을 없애지는 않는다. 화장실이 모든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필수공간인 것처럼 여학우 휴게실도 항상 성폭력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여성들만의 소통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곳 성균관대학교에서는 필수적인 공간이다. 따라서 여학우 휴게실이 없는 건물이라면 당연히 만들어야 하고, 특히 건물을 새로 지었다면 더욱 당연한 것인데 성균관대학교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지 안 그래도 부족한 공간을 줄이고 없애려고 한다. - - -

■ 왜 여학우 휴게실은 있고, 남학우 휴게실은 없을까?

우리 학교에는 여학우 휴게실이 있지만 남학우 휴게실은 없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에 대해 반문한다. 그건 오히려 역자별이 아니냐고 남자들도 쉬고 심을 때가 있다고 그럴 이쯤에서 왜 여학우 휴게실이 화장실만큼의 필수 공간인지 알고 싶고 넘어가야겠다.

① 과방/ 동아리방은 누구에게나 편한 공간인가?

과방/ 동아리방은 그 단위에 소속된 학우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다. 과방 안에서는 같이 밥도 먹고, 대학생활에 관한 정보도 얻고, 가끔은 토론이나 세미나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많은 학우들이 이런 활동을 통해 대학 내에서 중요한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이러한 이유로 새내기 때는 '내가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을 찾는 것이 필수적이기도 하다. 그런데 몇 번 드나들다 보면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하게 된다. 선배들 중에 특히 3,4학년 중에는 여학우를 보기가 좀처럼 어렵다는 것이다. 남학우들은 군대를 갔다 오면 다시 과방이나 동아리방을 찾는다. 그리고 '고학년'으로 불리며 그 공간에서 중요한 인물로 자리 잡는다. 영향력 있는 남자선배는 있지만, 영향력 있는 여자선배는 드물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과방/동아리방의 분위기가 여학우들을 소외시킬 수밖에 없는 분위기이기 때문이다. 쉽게 음담패설을 즐기고 군대에서의 경험을 쉬지 않고 얘기하는 일부 학우들이 형성하고 있는 남성중심적이고 연장자중심적인 분위기가 여학우들이 과방/동아리방에 오기를 꺼리게 만든다. 거기다가 남자선배들은 여자 새나기가 들어오면 '후배'가 아닌 '연애대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강하다. 그래서 남자선배들이 남자 새나기보다 여자 새나기들을 더 많이 챙겨주기도 한다. 하지만 학년이 올라가고 또 다른 새나기가 들어오면 '연애대상'이 옮겨져 남자선배-여자후배의 관계는 부질없어지기 쉽다. 이러한 이유로 과방/동아리방은 여학우들에게는 결코 편한 공간일 수만은 없는 것이다.

② 과방은 여학우들이 쉬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없다.

여학우들이 정말로 쉬고 심을 때-생리통이나 잔날의 과음으로 잠을 자고 심을 때 등-과방/동아리방을 이용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사실 과방/동아리방에서 잠을 자는 것은 흔한 일이다. 하지만 이것은 남학우들에게 흔하고 쉬운 일이지 여학우들에게는 그렇지 않다. 구석 소파에서 남학우가 자고 있다면 '저 자식 또 술 마셨나봐' 정도라면 생각하지만 여학우가 자고 있다면 거기에 대해 무언가 불편한 논조를 하나 더 던진다. 본인이 마초임을 자랑처럼 떠벌리는 사람이 아니고서야 드러내놓고 '여자에게 아무데서나 함부로 자냐?'라는 말을 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아직도 사회적 분위기가 여성과 몸가짐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다. 또 과방/ 동아리방에서 여학우가 잘 때 성폭력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에 여학우들은 맘 편히 잠을 잘 수가 없다.

③ 여학우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가?

위 질문에 누군가 반문할 수도 있겠다. 남학우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공간도 없지 않냐고. 그런 사람은 바로 위의 문항 ①을 제대로 읽지 않은 사람이다. 위에서도 말했듯이 과방이나 동아리방 등의 학생자치공간의 분위기는 대부분 남성중심적이다. 보통 이루어지는 대화의 양상을 보면 어디를 가도 군대 얘기가 대화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그 나머지 반은 연애 얘기가 주를 이루고, 사회적 이슈나 기타 등등의 이야기가 나머지를 채운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여학우들이 살아남으려면 남학우들의 얘기를 잘 받아들이고 그 분위기에 익숙해지거나 '영향력 있는 남학우의 여자친구'가 되는 수밖에 없다. 하지만 여학우가 남성중심적 안 문화를 자신의 것으로 취득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 연애관계는 지속성을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에 두 가지 방법 다 좋은 방법은 아니다. 결국 남성들의 문화 속에서 여성들은 소외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여학우들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고, 여학우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고, 여학우들만의 경험을 토로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것이다. 학교에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는 공간은 여학우 휴게실뿐이다.



■ 그럼 여학우 휴게실은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

지금 여학우 휴게실의 과제는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단 세 곳에 없는 여학우 휴게실을 더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필자는 모학교의 한 여학우로부터 여학우 휴게실에 관한 불평을 들은 적이 있다. '우리 학교는 여학우 휴게실이 8개 밖에 없어' 그 말은 나를 상당히 경악하게 했다. 단순히 숫자상으로 타학교보다 개수가 적은 게 문제가 아니다. 수선관에서 가장 가까운 여학우 휴게실은 법대에 있는 지소당인데, 일일 테이블 하나만 갖추고 있어서 여휴라고 보기 어렵다. 결국 가장 가까운 곳은 학생회관 4층에 있는 옹터이다. 하지만 수선관에서 수업이 끝나고 옹터에 와서 잠깐 쉬고, 다시 수업을 들으러 수선관으로 간다면 오히려 쉬지 않는 것만 못하지 않을까? 많은 여학우들이 공강 시간에도 편하게 쉴 수 있도록 여학우 휴게실을 여러 곳에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

다른 하나는 여학우 휴게실을 단순한 휴게 공간이 아닌, 여학우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연대의 장으로 발전시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여학우 휴게실은 단순한 휴게 공간만은 아니다. 여학우들이 여학우 휴게실에서 서로 담론을 형성하고, 인맥도 형성할 수 있다면 정말 나위 없을 것이다.

휴~ 앞으로 길 길은 멀다.

여.女. 기.氣. 를. 말.한.다.

女氣
여성

취업

그녀의 생각
- 이런 건 언제?

요즘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하다고들 하지 근데 여성 취업 문제는 더욱 심각한 것 같아. 가족이나 동아리 자립도 없는데 여성이라고 받아주지 않고 계약직으로만 뽑으려고 하잖아. 그래서 말인데, 이런 생각을 한 번 해봤어. 만약 지금과 반대의 세상이 있다면 말야, 그러니까 『이탈리아의 딸들』에서와 같은 나라에서는 취업 문제가 어떻게 나타날까 하고 말야, 그럴 얘기를 시작해 볼까?^^

내남은 지금 대학교 4학년이다. 요즘 안 그래도 취업난이 심각한데 회사에서 남자들은 잘 뽑아주지도 않는다. 주변에 있는 여자들은 성적이 별로어도 면접도 자주 보는데 난 벌써 79군데나 원서를 제출했는데도 면접을 보러 오라는 연락이 없다. (A는 성적이 상위권이고 외국어 실력도 뛰어나다.) 면접을 위해 '취업특강-남성들의 이미지 메이킹 특강'도 여러 번 들었고 '여자'상사들에게 예쁘게 보이기 위해 옷은 연습도 많이 해 두었는데 아직 한 번도 써먹지 못했다.

드디어 79번째 원서를 제출한 곳에서 이를 후 면접을 보러 오라는 연락이 왔다면 부른 가슴을 안고 한 달 전 취업 준비용으로 산 장갑을 입고 면접장으로 향한다. 그런데 면접장에 도착하고 보니 조금 불안하다.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다들 키가 작고 통통한 여자들한테 인기 있는 예쁜 얼굴인데 난 마르고 키도 크다. 살아 외모 때문에 멀어질까 하는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불안하다. 면접이 시작되었다. 그런데 면접관들은 이상한 질문만 한다. 나는 내 외국어 실력을 발휘해서 이 회사에서 열심히 일할 것이라는 말을 준비해 왔는데 그런 질문은 하나도 하지 않는다.

“애인은 있습니까?”

“네? 아 저... 없는데요...”

“애인도 안 만들고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나 애인 있는데 자기가 뭐 보태준거 있니?”

또 옆에 앉은 남자에게는 커피 잘 팔 줄 아니냐고 물어본다. 뭐야 이 회사는 커피 자판기도 없냐? 하지 만 여자들에게 하는 질문은 다르다.

“영어로 자기소개 해 보겠습니까?”

“네 나도 영어로 자기소개 잘 할 수 있는데...”

“리더십이 있는 편입니까?”

“우리 회사 제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취득한 자격증은 무엇인가요?”

난 침을 수 없었다. 나도 능력으로 평가받고 싶은데 아예 기회조차 주지 않는다. 이게 몇 번의 실패로 얻은 면접 기회인데, 이대로 아무 말도 안하고 그냥 갈 수는 없다. 난 열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어, 저한테게도 그런 질문을 해 주십시오. 저도 나름대로 외국어 실력도 어느 정도 갖추었고 다른 능력도 뛰어나니까.”

“... ”

면접관들 표정이 이상하다. 아무래도 실수한 듯싶다. 면접관이 말을 꺼낸다.

“사실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능력이 뛰어난 건 사실이 아닙니까?”

“... 그게 어째서죠?”

“아니 그럴 아이도 낳지 못하는 남성들이 도대체 무얼 잘 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이를 낳지 못하고 낳지도 못한다는 사실에 피해의식이 있다는 건 그렇다 쳐도 인정할 건 인정을 하십시오!”

“... ”

난 아무 말도 못하고 나와 버렸다. 아이 못 낳는 게 내 잘못인가 뭐 왜 그 사실 하나로 남자들이 이렇게 피해의식이 하나.

사실 이런 그다지 유쾌하지 않은 상상이다. (이탈리아 딸들을 초반에는 재미있게 읽다가 다 읽고 나면 기분이 씁쓸해 지는 것과 마찬가지) 지금 사회에서 여성-남성의 위치만 그대로 바꾸어 놓은 꼴이니, 아니 바꾸었기 때문에 오히려 차별의 자질이 더 강하게 다가오는 면도 없지 않다. 이 글이 어떻게 읽히는 만큼 '여성취업' 문제이라는 말도 이해해 주는 날이 오기를 바라네!

『이탈리아의 딸들』, 게르드 브란튼베르그, 1997

항금까지 이탈리아라는 공간은 남자와 여자의 위치가 바뀌어 있고 미(美)의 기준이 반대라는 것 알고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와 별반 다를 것 없는 곳이다. 그러나 입장을 바꾸면 세상을 보는 눈도 달라지는 법! “페미니스트는 별 거 다 트집잡더라” 혹은 “여성 차별·가부장제·난 그런거 이해할 수 없어”라고 생각했던 이들을 위한 책. 특히 여성의 현실을 궁극해 하는 남성들에게 권한다. 이 사회에서 여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역지사지’의 그 생생한 체험을 맛보게 할 수 있다.



이 글은 지난 제 11회 여성현실제 '성폭력으로부터 안녕하기' 프로그램 중 '새내기 여학우의 글 공모'에 당선된 이야기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새내기...
여학우...
응모 글..
당선작...

대학에서 만난 여친 이야기

대학에 오면 대부분 계산적으로 자기에게 필요할 것 같은 사람들만 가려서 사귀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 친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는데 알고 보니 겉으로만 친한 거였다니, 친구라는 의미보다는 동료라는 의미로만 생각된다니... 하도 많은 이야기를 들어서 솔직히 처음에는 대학에서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 같은 것이 있었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우리 학교에서 내가 속한 반이 있고, 짝꿍도 있고, 친구의 친구도 있고 그래서 친구 사귀는 데 어려움이 전혀 없었는데 대학은 그렇게 일정하게 정해진 만남이 없으니 어떻게 친구를 사귀어야 하나 고민이 많이 됐다. 그래서 처음엔 귀찮은 마음에 오티도 갈까말까 망설였었는데 오티 친구가 대학 졸업할 때까지 친구라고 하는 말을 듣고 가기로 결정한 거였다.

그 오티 때, 배정된 조에서 한 명의 여자 친구를 만났는데 지금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다. 오티 조에서 유일하게 우리 둘만 여자였기 때문에 더 친해질 수 있었던 것 같다. 시간표를 완전히 똑같이 짜서 항상 수업도 같이 듣고, 밥도 같이 먹고, 대학로도 같이 구경 다니고 한다. 주변 사람들은 C.C 라느니, 삼쌍둥이라느니 말들이 많지만 그래도 좋다. 고등학교 때 친구 같은 편안함이랄까... 그 친구의 가족, 첫사랑, 친구들,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그동안 그 친구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았고, 지금도 알아가고 있는 중이다.

대학에 와서 가끔 힘든 일이 있었는데, 그 때마다 그 친구에게 고민상담도 받고, 위로도 받았다. 그리고 그 친구에게 고민이 있을 때는 내가 상담해주곤 했다. 앞으로의 대학생활도 계속 이 친구와 함께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그 친구는 서울에 살기 때문에 방학 때 자주 만날 수 없지만 그래도 전화도 자주 하고 오프라인에서도 자주 만나기로 했다. 땀날 땀날 만나다가 못 보면 너무 심심하고 보고싶을 것 같아 벌써부터 심심하다.

고등학교 때 친구들과 가끔 연락을 하면 친구들마다 대학 생활에 대해 다르게 느끼고 있는 것 같다. 어떤 친구는 공대이기 때문에 여자친구들보다는 남자친구들이 많고, 그나마 있는 여자친구도 자기 애인과 노느라고 자신과 놀아주지 않는다며 투덜댄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많이 보고싶고, 대학에서도 그렇게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여자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한다. 다른 친구 한 명은 여고를 다니다가 여대로 간 친구인데, 대학교는 고등학교 때랑 많이 달라서 당황스럽다고 했다. 똑같이 여고이고, 여대인데 분위기는 전혀 다르다고 한다. 그나마 명품 같은 것이 없어서 다행이라고 했다. 반면 다른 어떤 친구는 고등학교 때보다 대학교가 훨씬 재미있다고 했다. 그 친구도 공대인데, 여자가 몇 안되기는 하지만 그 여자친구들끼리 톨툴 뽀뽀해서 다니기 때문에 많이 친해지고 남자친구도 많으니 일석이조라나. 이것 보면 사람마다 대학 친구에 대해 느끼는 감정이 다르고, 그렇게 되기까지는 그 사람 주변의 영향도 크다는 생각이 든다.

대학 친구들과 모두 친하게 지낼 수는 없지만 그건 대학 이전의 친구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내가 어디에 속해있든 나와 맞는 친구는 있을 것이고 그런 친구를 찾는 것은 어느 정도 나의 능력이기도 하다는 것... 물론 많은 사람들을 사귀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제 막 사회에 발을 내딛은 나 같은 새내기는 앞으로의 대인관계가 얼마나 넓은지도 중요해질 테니까... 하지만 난 여전히 자기 잇속을 챙겨가며 가식적으로 이어지는 그런 만남은 별로 달갑지 않다. 앞으로도 서로의 진심을 보여가며 인간 대 인간으로의 만남이 이어지는 그런 대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다.